

“떠나요~ 봄이 활짝 피는 남도로”

문광부, 5월 1~14일 봄 여행주간 전국 1만2000개 업소 할인혜택 광주·전남 ‘남도문화산책’ 등 KTX 연계 관광객 초대 나서

회사원 박모(45)씨는 오는 5월 둘째 주 가족과 함께 완도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예년 같으면 7월 말이나 8월 초 피크에 휴가를 얻어 갔겠지만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비수기에 여행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는 5월 1~14일 국내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2016 봄 여행주간’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여행업계도 이러한 ‘얼리버드 휴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관광주간에서 이름을 바꾼 여행주간은 범국민적인 여행 분위기를 조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여름철에 집중되는 국내 여행 수요를 분산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 관광시설, 숙박, 음식점 등 1만2000여개 업소가 관광객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평소 출입이 어려웠던 제주도 핫즈런을 무료 개방하는 등 관광지와 유원시설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4대 공, 종묘, 국립생태원 등은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슬로우 걷기 축제’가 열리는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명리조트 등 유명 리조트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인 굿스테이 97곳 등이 숙박요금을 할인한다. 문체부는 여행주간을 맞아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지자체별 대표 프로그램 17개를 마련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봄, 찬란한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등이 꼽혔다’와 ‘남도문화산책’을 마련 관광객 초대에 나섰다. 또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해 5월 7일을 ‘연인의 날’, 14일을 ‘아내의 날’로 지정해 연인·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관광지

를 홍보한다. 문체부는 여행주간을 계기로 봄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국내여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경제 단체를 통해 민간기업의 여행주간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여행주간 시행과 관련 지역 여행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봄 여행주간에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가족 등을 모시기 위한 영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진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학교와 공공기관, 개별기업을 상대로 모객을 강화하고 있다”며 “복잡한 시기를 피하고 보다 저렴하게 휴가를 즐기려는 합리적인 소비층이 늘고 있어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여행주간 선점은 KTX 호남선 개통으로 점차 회복하는 있는 여행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험금 누장 지급 땀 연 8%P 이자 물린다

금감원,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 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한 효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책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을 적발해 지난 2월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연합뉴스



삼성전자 모델들이 13일 조리실 상단에서 직화 열풍을 고르게 쏟아 내는 ‘핫블라스트’ 기술을 적용한 삼성 직화오븐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핫블라스트’ 직화오븐 출시

조리시간 최대 50% 단축

삼성전자는 조리실 상단에서 직화 열풍을 고르게 쏟아 내는 ‘핫블라스트’ 기술을 적용한 직화오븐 신제품을 출시, 프리미엄 오븐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35ℓ 화이트 컬러 모델로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출시한 35ℓ 블랙 컬러와 32ℓ 블랙 & 화이트 컬러 모델에 이은 네 번째 핫블라스트 모델이다. 핫블라스트는 조리실 내부 상단에 위치한 에어홀에서 음식물로 고르게 쏟아지는 직화열풍으로 조리시간을 최대 50% 단축

시키고 겉은 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 요리의 풍미를 더해준다. 이번 출시한 오븐은 화이트 컬러 특유의 깔끔함으로 세련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국내 최대 용량과 지름 380mm의 커다란 회전판을 갖춰 패들리 사이즈 피자도 한번에 조리할 수 있다. 99.9%의 항균력과 높은 내구성을 지녀 화덕·뚝배기 같은 효과를 내는 세라믹 조리실은 원적외선이 음식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만들어 더 촉촉한 요리를 완성해준다. 160가지 자동 조리 코스가 제품에 내장돼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7월부터 인천~일본 삿포로 취항

250석 규모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홋카이도 중심 도시인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신규 취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 7회(매일 1회) 인천~삿포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하루 250석 규모의 좌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홋카이도 남서부에 있는 삿포로는 세계적인 눈 축제 ‘유키마츠리’가 열리는 도시로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

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복세를 보이는 일본 노선 출입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삿포로 노선을 개설하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과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1월 10일 서울~도쿄 노선으로 첫 국제선 정규운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 한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동차 수출 ‘급제동’

1분기 65만4494대 판매 ...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

올해 1분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 1~3월 65만 4494대(승용차 62만6144대, 상용차 2만 8350대)의 차량을 외국으로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수출 실적인 73만3759대에 비해 10.8% 줄어든 수치다.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수출된 차량은 한국GM의 소형 SUV 트랙스(6만1466대)였다. 이어 현대차 아반떼(5만5440대), 기아차 프라이드(5만5106대), 현대차 엑센트(4만9375대), 현대차 투싼(4만 5093대) 순이었다. 한국GM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소형 SUV에 대한 수요가 많아

트랙스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현지 수요에 맞추기 위해 부평1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랙스는 지난해 연간 수출 22만1천 560대로 현대차 엑센트(27만2천493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가 이번 1분기에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업체별로는 기아차 25만4332대, 현대차 23만9226대, 한국GM 11만1707대, 르노삼성 3만7984대, 쌍용차 1만1044대 등 순으로 수출 실적이 많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출시된 신차들이 본격적으로 수출 대열에 합류하면 2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http://art.kjmedia.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0 호남예술제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 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6년 4월 6일(수) - 4월 12일(화)

미술·작문 부문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위원장(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